



학원가 의문의 ‘시음행사’ 알고 보니 마약 음료수

신종유형 발생경보 제5호

서울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수를 건넨 일당 검거

23.4.3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를 시음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는 학생들을 속여 마시게 하고, 부모의 연락처로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이 알려지면 좋을 게 없지 않냐”
라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타인이 제공하는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음료수 등은 절대 음용 금지!!
이와 유사한 의심사례 발생 시
곧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위와 같은 사례의 피해자는 마약임을 알지 못하고
복용하게 된 경우로 처벌받지 않으니,
피해를 입으신 경우 반드시 112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